

『황영조선수』 '96올림픽마라톤한국대표선발촉구건의안

의 안	274
번 호	

발 의 년 월 일 : 1996년 3월 27일

발 의 자 : 박병근의원외 14인

1. 주 문

우리나라가 낳은 세기의 마라토너 황영조선수가 대한육상경기연맹 선수선발 규정에 의거,

'96년도 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황영조선수의 출생지인 우리 10만 삼척시민의 충격과 경악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황영조선수의, 국위선양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반드시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에서 구제되어야 하며,

이 문제는, 황영조선수의 개인적인 영예, 그리고 출생지의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서 4천 5백만 국민모두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공동 연대하여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확산되고 있어,

정부나 관련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황영조선수의 국위선양 기여도, 국민여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96년 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문제를 심도있게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실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96년도 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 한국대표 선수 선발규정이
'96년도 조선일보 춘천 국제라마톤과 이번 동아마라톤대회
성적을 종합하여, 그 순위에 따라 대표선수를 선발한다는 규정을
모르는바는 아니며, 이 규정을 도외시 하자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나

이 규정을 제정한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황영조선수는 현재 한국마라톤의 최고기록보유자(2시간 08분 09초)
일뿐만 아니라,

'92년도 바르셀로나올림픽, '91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아게임을 제패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50억 지구촌 곳곳에 알린 국위선양의 일등공신이라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94년도 세계의 내노라하는 마라톤 건각들이 출전한 보스턴
국제마라톤대회에서 한국최고기록을 수립하면서,4위에 입상하는등,
각종 국제마라톤대회에서 대회 출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황영조
선수를 출전시킬만큼, 우리나라 마라톤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위선양의 일등공신인 세계적 마라톤 선수를 확일적 선수선발 규정에 의거, 단 2회에 걸친 출전성적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가대표에서 제외시킨다면,

세계 스포츠 강국임을 자처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스포츠를 통한 외교적 실리추구와 국위선양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 체육정책의 난맥상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 마라톤대회에서 많은 출전료까지 지불하면서, 출전을 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를 탈락시키면서까지, 질보다 참가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선수선발 규정을 중시할때, 국민여론 악화만 초래할 뿐, 과연 국가가 얻을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겠습니까 ?

지금, 각종 체육회를 비롯하여 4천5백만 국민여론이 황영조선수의 지금까지의 국위선양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제되어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하여, 국위선양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대국민 정서와 여론을 정부나 대한민국체육회, 육상경기연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도, 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 코스의 기후, 언덕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상위 입상가능한 선수에게 자동출전권을
부여한 사실도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국제대회 출전경험,
국위선양의 기여도등을 감안, 유도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탈락한
선수를 구제한 선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어떠한 규정이나 원칙만을 중시하는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

이미 한번의 올림픽과 아시아 대회를 제패한 경험이 있는
황영조선수가 국민적 영웅이라는 점과, 올림픽 2연패의 신화를
기필코 창조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 우리나라의 최고기록보유,
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코스에 가장 적응할 수 있다는 제반여건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코리아물결이 다시한번 지구촌 곳곳에 넘실거려,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일깨울수 있도록 '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마라톤
한국대표 선발문제를 재고하여 주실것을 10만 삼척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 제안이유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선수선발 규정에 의거,
황영조선수가 '96애틀랜타 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의 국위선양의 기여도, 한국최고 기록보유,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연속 제패, 현지 마라톤코스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마라톤 국가대표에서 선발되어,
올림픽 마라톤 2연패라는 국민적 여망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첨예한 여론 확산에 따라,

황영조선수가 '96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 대표선수로
반드시 선발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